3차 백신 접종률 40% '돌파'

익산, 오늘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만료 대상자 추가접종 적극 독려

익산시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완료율이 40%를 넘어섰다. 시민 10명 중 4명은 3차 백신을 맞은 셈이다.

시는 지난 29일 기준 누적 코로나19 접종자 수는 1차 접종 23만 9433명, 2차 접종 완료자 23만 2705명, 3차 접종(추가) 11만 66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익산시 전체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94.1%이며 3차 접종률은 41.6%를 보이고 있다. 이는 3차 접종률 전국 평균 33.4%와 비교해 8.2%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접종기간으로 운영함에 따라 3차 접종률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87.5%에 이른다.

접종간격이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18-59세 연령층도 접종간격 도래 시기에 맞춰 4만3천577명이 접종하여 56.1%의 높은 접종률을 보이며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3차 접종과 함께 12~17세 청소년의 기본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소년 12~17세 1차 접종률은 78.6%로 접종 대상자 1만5857명 가운데 1만2462명이 접종을 진행했다. 2차 접종률도 9,221명, 58.2%에 달하며 절반 이상이 접종을 완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접종률도 높아졌다. 고교 1·2학년에 해당하는 16·17세가 1차 접종률 82.8%, 2차 접종률 72.8%를 기록했다. 12~15세는 1차 접종률 76.4%, 2차 접종률 50.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익산=이득훈 기자

저소득층 노후주택 보수사업 추진

군산시, 따뜻한 겨울나기… 시민들 호응

군산시가 저소득층 노후주택 보수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2021년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총 548가구의 노후주택 보수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인 자가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241가구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LH에 위탁해 주거급여 자가 가구의 주택 노후화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창호, 싱크대, 도배, 장판은 물론 난방, 단열, 지붕 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선주기는 각 3년, 5년, 7년이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노후주택에 살고 있으나 주택 보수를 지원받기 어려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 및 기타 저소득가구 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시행, 274가구를 지원했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에너지재단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보수내용은 단열 기능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의 벽체 단열, 창호 교체, 난방 배관 및 보일러 교체 등이며, 더운 여름을 대비한 벽걸이 에어컨 설치 및 냉방 용품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300만원이고 2년 주기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250여 가구를 추천해 포기자 등을 제외한 239가구의 보수를 완료했다.

또한 군산시가 200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현재까지 57억여원을 들여 1,800여 가구에 도배, 장판, 창호, 싱크대, 욕실, 지붕 보수 등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 3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35가구의 보수를 완료했다.

이 외에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5가구와 농촌지역 저소득층 노후주택, 농촌집 고쳐주기 사업 28가구 등을 지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2021년 친절 우수부서 3곳·직원 5명 선정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친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귀감이 된 올해의 친절 우수 부서와 직원을 선정했다.

31일 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친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친절 우수부서 3곳, 직원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부서는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등 3개 부서이며 이들은 부서 방문 모니터링 점수, 친절 마일리지, 국민신문고 등 민원처리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선정됐다.

친절 우수직원은 시민 추천과 친절 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자 중 자체 심사를 거쳐 5명이 선정됐다.

선제적 정보제공을 통한 원스톱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위생과 권미애(행정7급), 드림스타트 참여 아동에게 세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동복지과 신재원(행정9급), 민원인 입장을 우선 공감·배려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 세무과 김선미(세무7급), 적극 행정으로 조손가정 주거환경을 개선한 복지정책과 최현경(사회복지7급),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해 위기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동산동 이하진(사회복지9급) 등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친절 행정을 펼친 직원들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

군산시 시민정보화 교육일정 확정, 10일 접수 시작

군산시는 시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 2022년도 시민정보화 교육을 오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무료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정보화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군산시민이면 오는 10일부터 누구나 원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할 수 있다.

교육장소는 시청 전산교육장(8층)과 수송동 시립도서관(4층) 전산교육장 2개소에서 동시 운영되며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2022년도 교육과정은 컴퓨터 활용,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 입문, 스마트폰 활용,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 편집, 영상 만들기 등 9개 과정으로 53회 실시하며 교육 대상은 과정별 30명 내외다.

각 프로그램은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까지 2~3주 과정으로 마련되어 있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며, 올해에는 전년도 교육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관련 과정 운영 횟수를 확대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파워포인트, 엑셀, 문서작성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장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 거주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와 원격수업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 교육은 다양한 계층이 시간적 제약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월, 수, 금 주3회 야간반(19:00~21:00)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그동안 시민정보화 교육은 2021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조치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9개 과정에 걸쳐 733명의 시민이 교육을 수강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6개월간 교육중지와 교육인원 축소 등 교육받을 기회가 대폭 줄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정보화 교육은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마인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코로나19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 정보화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정보통신과(☎ 454-215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함라두레마당 떡볶이 문화축제' 개최

익산시 '함라두레마당 떡볶이 문화축제'가 내년도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마을 축제로 선정되며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에 따르면 전북도 지역특화형 마을 축제로 '함라두레마당 떡볶이 문화축제'가 공모에 선정돼 내년 11월 중 함라두레마당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는 축제를 통해 우리 주식인 쌀의 중요성과 전통 음식 문화의 소중함을 알게 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 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해 도·농 간 교류와 화합,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2인 1조로 개성 있는 떡볶이 만들기 경연을 펼치는 '별난 떡볶이 요리경연대회', 소통화합의 떡볶이 음식 나눔으로 복을 부르는 '떡볶(福)이 시식회', 관광객이 가져오거나 현장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튀밥 기계로 직접 튀겨서 맛보고 가져가는 '뻥이요~ 추억 튀밥집', 논두렁을 따라 전통과 현대를 잇는 농경문화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논두렁전'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주민과 관광객의 화합과 소통을 돕는 '길놀이와 대동판굿', '사물놀이와 강강술래' 공연,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문화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마을예술가 작품전', 다채로운 체험운영 등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마을 축제 사업은 시·군별 특색 있고 이야기가 있는 마을 축제를 발굴·육성해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및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지역특화형 마을 축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이같이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마을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축제 지원을 통해 공동체 화합과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군산시, 일부 공공시설 오늘부터 운영 재개

군산시는 2022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 운영을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예술의전당 공연장·전시장, 근대역사박물관,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 21개소와 실외체육시설 등에 한해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시설 이용 시에는 정부의 방역지침인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또한, 실외(야외) 공공체육시설은 군산시민에 한해 대관 신청접수를 받으며, 경기인원의 1.5배까지만 허용한다.

관내 경로당 519개소,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은 관내확진자발생 및 부스터샷 접종 추이를 지켜보며 운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 이용자 분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시설을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기자

군산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4회 연속 선정

군산시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 결과 A그룹 2위를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은 세수 규모에 따라 A그룹(1,500억원 이상), B그룹(600억원 이상), C그룹(600억원 미만)으로 나눠 징수율 신장, 특별징수기간 목표 달성도 등 8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도에서 선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의 납세자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4회 연속 선정됐으며, 이를 비롯해 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연찬회 및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일련의 성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금을 성실껏 납부해 주신 시민들의 큰 덕택"이라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